



세계의 주택협동조합을 찾아서(3)

## 지속가능한 개발에 충실한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



2013.05.03 | 새사연 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이탈리아의 주택협동조합은 이러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은 사회적 주택협동조합 형태의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전략을 취했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에 기초해 좋은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고수하는데 있어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이 보여준 리더십은 높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 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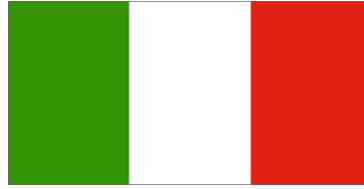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 역사 요약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은 크게 전통적 주택협동조합과 사회적 주택협동조합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대신 시장 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도록 허용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조합원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고, 대신 저렴한 가격과 보장된 거주권이 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주택 소유를 전제로 한 주택공급이 전통적으로 주를 이뤄왔고, 이러한 전통은 주택협동조합 운동 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화의 영향과 재정부족으로 공공주택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적 주택협동조합들이 과거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대출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건설부지 제공, 더 나아가 조합에 대한 직접적 자금지원 등을 통해 주택협동조합의 성장에 기여했다. 또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협동조합들로 하여금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연대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고, 이 기금이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주택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은 4개의 전국연합들에 의해 조직된다. 이 연합들은 개별 주택협동조합의 설립을 돕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 단위 조합들 사이의 연대를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한편 친환경 건설,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들의 높은 관심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개발 부문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이탈리아의 주택협동조합

관련 통계
총 인구: 60,626,442 명 (2011년, Eurostat)
총 주택 수: 30,038,200 호 (2001년, Il Mercato ella Casa in Italia 2012, VI report ANCAB-CRESME)
총 사회 (임대) 주택 수: 1,201,528 호 (전체 주택 수의 약 4%) (2011년 C ECODHAS 2012 Housing Europe Review)
총 협동조합주택 수: 672,000 호 (4,300개의 조합이 운영 중에 있음)
협동조합주택에 거주하는 총 인구: 618,000 명

### 역사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다. 1854년에 설립된 최초의 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886년, 레가쿱(Legacoop, 설립 당시 Federazione Nazionale delle Co-operative라 불림)이라는 전국 협동조합 협회가 만들어졌다. 1919년 레가쿱은 분열되었고, 'Conf co-operative' 라는 또 하나의 전국 협동조합 협회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와 같이 이탈리아 협동조합도 연대의 원칙하에 실업이나 높은 생계비 부담과 같은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립되었다.

이탈리아의 첫 번째 주택협동조합은 1884년에 설립되었다. 담배공장의 노동자들이 건설한 이 주택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발달한 지역으로 유명한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의 수도, 볼로냐(Bologna)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1800년대 말부터 1920년대까지 수천가구의 협동조합주택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주택공급은 협동조합이 담고 있는 가치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계대전은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 많은 협동조합들을 파괴시켰고, 파시스트 레짐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던 주택협동조합의 종말을 가져왔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협동조합 운동은 다시 부흥했다. 국가는 경제를 재건하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고 민주적인 제도들을 바로 세워야 했다.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입법적 조치들을 함께 취했다. 1947년에 새롭게 개정된 헌법 45조는 협업(co-operation)의 필요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공화국은 사적 투기를 배제하고, 상호 부조의 형태를 가진 협업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한다. 공화국의 법은 가장 적절한 수단들을 동원해 협업의 확산을 장려하고, 협업의 본래 특성과 목적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견제 수단을 제공한다.”*

같은 해, 협동조합의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는 “바세비법(Basevi)”이 채택되었다. 협동조합 성공에 밑거름이 된 이 법은 협동조합이 개인에게 배당하지 않는 적립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까지를 이 적립금에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되는 잉여금에 대하여 법인세가 완전히 면제되면서 협동조합의 중요한 자금원이 되었고, 이는 협동조합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 후 1992년, 법률번호 59(the Law number 59)가 채택되어 협동조합이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이 마련되었다. 조합기금(COOPFOND, Fondo Promozione Co-operative)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연대기금이 만들어진 것이다.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탈리아 협동조합들은 이 기금에 연간 이익의 3%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다. 조합기금은 운영 12년 만에 2억 4천만 유로가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 연대기금은 오직 이탈리아 국적을 가진 협동조합만 이용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협동조합은 부흥기를 맞이했다. 1980년과 1985년 사이의 어려운 시절을 겪기도 했지만, 주택협동조합은 1990년대부터 주택개발 붐이 있었던 2007년 중반까지 급격히 늘어났다. 그 후 유럽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주택건축은 축소되었다.

1990년대 말까지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의 입안과 수행, 자원조달 및 배분 등은 전적으로 연방정부가 전담해 왔다. 지방정부는 아주 제한된 역할만 담당할 뿐이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주택부문의 개혁이 추진되어 지방정부가 이탈리아 주택문제의 해결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제 개발상 우선순위 결정과 재원할당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었고, 연방정부의 역할은 정책개발, 건설기준 승인, 통계수집, 정보 공유 등으로 한정되었다.

##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이 처한 상황

이탈리아에서는 자가보유를 전제로 한 주택공급이 주를 이루었고, 이는 주택협동조합 운동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주택재고량의 18%만이 임대주택이고 그 중 1/4정도(약 백만 가구)는 사회주택이다. 더욱이 이러한 임대주택들은 지역적으로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여러 해에 걸쳐 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립금으로 전환된 잉여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주택협동조합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컨소시엄의 결성지원
- 합자(주식)회사의 출자자가 되거나 그 운영에 참여할 권리
- 협동조합의 미래를 대비하는 연대펀드에 대한 기금 제공을 의무화

오늘날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혹독한 주택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경제위기와 실업증가는 가계가 용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 인구 구성상의 변화로 인해 주택수요가 바뀌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에 협동조합들과 그 관련단체들은 노인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생활과 노인(Abitare e Anziani)'이라는 조직을 설립하였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이탈리아도 이주민의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로 대도시지역에서 독립해 거주하는 대학생들이나 비정규직,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 젊은 부부들이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 높은 이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대표적인 신 주거 취약계층이다.

공공주택의 감소도 주택위기에 기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된 공공주택 매각은 저가주택의 부족을 가져왔다. 주택공급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한 정책도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맞물려 전국적인 주택 불균형문제를 심화시켰다. 부족한 재정자원 때문에 주택지원은 저소득층에만 한정되었다. 연방정부의 역할 축소와 시장 자유화 경향도 이탈리아의 주택문제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략 100만 가구 정도의 사회주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주택협동조합은 이러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주택협동조합

은 사회적 주택협동조합 형태의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전략을 취했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에 기초해 좋은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고수하는데 있어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이 보여준 리더십은 높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범유럽 차원의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들은 이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

예를 들면 Legacoop Abitanti와 Federabitazione는 모두 최근 추진된 POWER HOUSE EUROPE 이라는 프로젝트의 파트너였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유럽 8개국의 협동조합주택 공급자가 각자의 경험을 교환하고,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Legacoop Abitanti는 사회주택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eSESHICT(거주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소비자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인지 서비스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환경과 자연자원에 대한 주택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LIFE-ECO Courts라는 프로젝트도 진행하였다.

Federabitazione도 우수한 품질유지 및 지속가능 전략을 수립하고, “Casa Qualita’ 라는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국내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유럽 프로젝트 SHE: Sustainable Housing Europe, IRH-MED: Innovative solutions for Mediterranean residential housing, ICE WISH: Intelligent Control Energy and Water wastage reductions In European Social Housing )

## 주요특징

이탈리아의 주택협동조합은 전통적 주택협동조합(conventional housing co-operatives)과 사회적 주택협동조합(social housing co-operatives)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두 유형 모두에 적용되는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주택협동조합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체결된 협정과 광역지자체에서 관리되는 승인시스템에 의해 설립된다.
- 협동조합은 건축협동조합(a building co-operative)을 통해 만들어진다.
- 조합원 자격은 협동조합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에 열려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협동조합주택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
-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200의 가입비를 내야한다. 가입비를 지불하면 투표권을 갖게 되고 대기자 리스트에 등록된다. 또 입주 가능한 주택이 나오면 이에 대한 정보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가 제공된다.

- 대기자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주택이 건설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집이 생기면 지원서를 작성한다.
- 조합원 자격이 승인되고 자격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지원일자 순으로 주택이 할당된다.
- 모든 주택협동조합은 3%의 순잉여금을 국가개발기금에 기부해야한다.
- 주택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최대 70%까지 가능)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는) 적립해야한다. 적립된 자금은 조합원들에게 배당되지 않고, 이에 대한 세금은 면제된다. 협동조합이 해산되면 이 적립금은 협동조합 개발기금에 귀속되고 개인 조합원에 환급되지 않는다.
- 관리회사에 위임하거나 직원을 고용해 협동조합주택에 대한 관리를 한다. 자발적 관리는 매우 드물다.

전통적 주택협동조합(소유자 거주형, conventional housing co-operatives - owner-occupied):

- 주택은 개별적으로 조합원이 소유한다.
- 정부보조금을 감안하여 시장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20년 동안 재판매를 금지하는 제한이 부과된 주택도 있다.

사회적 주택협동조합 (임대형) (social housing co-operatives - rental):

-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 특수한 요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 소유권은 협동조합에 있고 조합원은 주택을 장기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주택을 임대방식으로 이용한다.
- 주택은 조합원의 특성에 맞게 안전,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저리의 자금을 조달한다.(상당히 제한적임)



레지오 에밀리아에 위치한 안드리아 주택협동조합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자금조달

현재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수요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신용경색 탓에 은행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얻고자 하는 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1998년 이전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연방정부가 조합에 대출이자에 대한 보조금을 주거나, 주택개발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를 띠었으나,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자금지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에 한정됨)을 하거나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공공지원은 전체 프로젝트 비용에서 1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의 재원은 조합원 출자금, 조합원 대출, 세금 면제, (배당 불가능한)적립금, 뮤추얼 펀드 등으로 구성된다. 뮤추얼 펀드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돕거나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1992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기금은 주택건설을 위한 직접적인 재원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경제개발기금부처(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Fund) 이외에도 현재 4개의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펀드가 있다.

2008년 주택계획의 수립으로 전국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던 부동산 기금들이 통합되었다. 이 통합 기금은 주거용 건물이나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 소득이나 가구특성상 공공주택에 입주할 만한 자격은 안 되지만 시장에서 적당한 주택을 구할 능력이 없는 가구를 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은 은행예금 및 대출기관(CDP SpA, Cassa Depositi e Prestiti SpA)과 같은 공공금융기관이나 은행재단을 포함하는 등 공공과 민간을 망라하여 재원을 조성하였다. 약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11개의 프로젝트가 이 기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 법률체계

주택협동조합을 위한 법률체계는 다음과 같다.

- 헌법 45조
- Decree Law of December 14, 1947, nr 1577 이탈리아 공화국의 협동조합을 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제하는 바세비법(Basevi)

- 법을 개정한 협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조항
- Law of November 8, 1991, nr 381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조항
- Law of January 31, 1992, nr 59 협동조합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조항(주로 재정적 측면에서 복수의 투표권을 보유한 협동조합 출자 조합원과 연대펀드에 대한 매년 3%의 잉여금을 강제로 할당하는 규정)
- Law of August 2, 2002, nr 20 협동조합법 개정
- Decree Law of January 17, 2003, nr 6, article 8 공동출자회사와 협동조합기업에 대한 규제
- 민법 2003, ITEM VI articles 2511 2548
- 기타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들: single text n. 1165 of 1938, Law n.167 of 1962, Law n. 865 of 1971, Law n.457 of 1978 and, Law n. 179 of 1992.

## 주택협동조합 운동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은 AGCI-Abitazione(AGCI 연합의 회원), FEDERABITAZIONE(CONFCo-operative 연합의 회원), Legacoop Abitanti(LEGACOOPI의 회원)과 UNCI, 총 4개의 전국단위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UNCI(Unione Nazionale Co-operative Italiane)는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협동조합 연합이지만 주택분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UNCI를 제외한 나머지 세 조직들이 연합하여 Alleanza Cooperativa Italiana(ACI)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ACI는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과 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상위조직의 성립은 협동조합운동의 자율성과 그것이 가진 상호협력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52년에 만들어진 AGCI Abitazione는 AGCI의 회원인 주택협동조합과 컨소시엄들로 구성된 연합조직이다. 이 조직은 소속단체를 대변하고 주택부문에서 협력을 촉진하며, 주택협동조합의 전문화를 지원하고 있다. AGCI Abitazione에는 633개의 협동조합이 있다. 이들 협동조합에 속한 총 90,000 가구 중에서 약 70%는 자가 주택이고 나머지 30%는 임대주택이다. 최근 AGCI Abitazione의 주택협동조합 회원들은 임대 주택의 공급과 기존 노후화 된 주택의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www.agci.it](http://www.agci.it) 을 방문하면 된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1954년에 설립된 FEDERABITAZIONE는 주택협동조합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이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직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새로운 주택협동조합의 설립을 돕는 활동들을 한다. 또 조합원과 지원조직의 간부, 대표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FEDERABITAZIONE는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주택협동조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연합체들의 연대와 교류를 강화하고, 협동조합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발전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Federabitazione는(주택협동조합의 품질검정을 목적으로 한) Consorzio Nazionale CasaQualita와 Consorzio Nazionale Conit-Casa라는 두 개의 전국적 컨소시엄을 만들었다. FEDERABITAZIONE는 총 2,408 개의 협동조합(2,294개의 협동조합, 102 개의 연합조직과 12 개의 기업, 2011년 6월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2192개가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이들 조합들은 총 158,800명의 조합원들이 거주하는 258,700개의 주택(대부분 자가소유형태)을 건설했다(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www.federabitazione.confco-operative.it](http://www.federabitazione.confco-operative.it) 을 방문하면 된다).

1961년에 창립된 Legacoop Abitanti는 주택분야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해온 조직이다. Legacoop Abitanti의 협동조합들은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건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에는 주택 신축, 주택 개량 및 지역정비, 현 거주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또 이 주택협동조합들은 현재 노인, 학생, 신혼부부, 이민자 등의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제공에도 역시 힘쓰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들은 최근 도심 지역의 주택 건설에 있어서 주택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친환경 건축 방식 도입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Legacoop Abitanti는 417,200명의 조합원을 가진 1,861개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다. 이들 협동조합에 속한 322,000개의 주택 중에서 52,000개는 임대형이고 270,000개는 소유형이다(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www.legacoopabitanti.coop](http://www.legacoopabitanti.coop) 을 방문하면 된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